

러브 코스보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선교사 선교 소식

코스보를 위한 기도제목

10월에 총선이 끝났지만 다수의 득표를 얻은 당이 과반을 넘지 못해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연정을 위한 협상이 너무 길어 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부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보 정치가 안정되고 속히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정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제목

1. 아심과 린디따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2. 신자들이 말씀 공부에 헌신하도록
3. 은지가 독일어 언어 시험을 잘 준비해서 남은 한 과목을 합격하도록
4.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5. 이선교사의 치아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처

- smleekosova@yahoo.com
- 070-8246-1434
- +383-44-334420(코스보)
- 카톡ID: samlee1016
- GMP: 02-337-7191

올다가 다시 모임에 왔다. 그동안의 사역에서 떠났던 아이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올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모임에 왔다. 우리에게서 받은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올다는 성품도 좋아 동생을 잘 챙겼다. 그리고 모임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그런 올다가 너무나 귀하게 보였는데, 그런 올다가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성실하고 반응이 좋은 아이들에게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언제 이런 아이들이 떠날 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이들은 6학년 정도부터 부모로부터나 일가 친척, 친구로부터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올다도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올다를 보고 싶어서 가정 방문도 했지만 공부할 것이 많다는 말을 올다 엄마로부터 들었을 때는 다시는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올다가 다시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 아이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 소식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소식을 전합니다.

이사

지난 기간 동안의 가장 큰 일은 이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고관절 통증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4층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적당한 집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여러 집을 봤는데,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역 장소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또한 2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사와 정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지만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내의 고관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기회가 되면 전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트닉(Etnik)

요즘 기도하면서 만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2017년 안식년을 갖기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체육학을 공부하면서 저를 다시 찾아 온 것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 온 것이 감사했고, 저희의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저를 찾아 온 것이 특별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는 생각에 소망 가운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연극 연습

아내는 몇 년만에 어린이 모임에 나오는 아이들과 성극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기 싫어하고 또 연극을 할만한 아이들이 없어 시도하지 못한 일인데, 올 해는 어렵사리 성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성극이라 아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길 바라고 또한 매 해 연극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축구 사역

집시 청년들 중심으로 축구 팀이 형성되어 매주 주일 저녁 축구를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코랍'이 자기 친구들을 동원한 덕분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이는 청년들은 이곳의 주류 현지인들과 피부색이 다른 집시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연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시들의 성향상 교회에 정착시키고 양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축구를 통해 교제하면서 다시 전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잘 지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소식

은지는 이곳에서 고 3을 보내고 있고 이제 독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언어 준비인데 이를 위해 지난 11월 말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독일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은지는 전체 4과목 시험에서 3과목은 통과하고 한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년 초에 다시 준비해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잘 하여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일이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독일어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편애하신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친구들을 지혜롭게 잘 대해 주어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관계를 위해 애쓰는 새일이가 기특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소식은 성탄절과 맞물려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소식 때까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년 12월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올림